



남원 죽향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과 협약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협약 내용은 죽향동과 청소년문화의집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의 행복 증진에 적극 동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적 연결망 구축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사회 나눔활동 협력 △청소년의 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협력 등이다. 협약 체결 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물품(목소리·방향제 등)과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돼지저금통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전가메트 5개를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물류학과, 쿠팡 전자상거래 학술 페스티벌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는 지난달 29일 쿠팡 전자상거래 학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쿠팡의 ESG 경영, 쿠팡의 글로벌 사업, 전통시장과 쿠팡,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45명의 재학생이 학과 장학금 및 공로상을 수상했다. 물류무역학과는 2021년 9월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와 국내 대학 최초로 물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2022학년도부터 쿠팡 각 부문의 임직원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쿠팡 물류의 기초, 쿠팡 물류의 이해' 정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교원들, 이웃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김제시 교원들(동장 강옥규)은 지난달 29일 교원들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자치위원 20여명,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을철 직접 심고 기른 온갖 안팎과 함께 버무린 배추 700여 포기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후원한 생필품을 경로당 중심으로 마을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사각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달했다. 최창의 주민자치위원장은 "김장 나눔 사업은 모든 과정속에서 노고와 사랑이 담긴 의미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도동지구대(지구대장 황인용)는 지난달 28일, 남원 농협 고추자집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된 전단지들을 농협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농협을 방문한 주민들에게도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전파했다. 황인용 도동지구대장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 대상 수상

제9회 전북 인물대상서 선정,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으로 국립대 교육혁신모델 구축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2023 제9회 전라북도 인물대상에서 교육발전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전라북도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뛰어난 인물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상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한국신문방송언론연맹회, 한국외신뉴스, 국제뉴스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국민간언론교육진흥원이 공동후원하였다. 이장호 총장은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으로, 국내 국립대학교



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하는 등 교육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장호 총장은 2022년 3월 18일 국립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ICC(산업협업특화센터) 기반 특성화대학부 신설, 전국 대학 최초 전파FREE 시스템 안착, MIX(믹스리) 기반 체용연계공유전공 구축 및 운영, 통학버스 전면 무료 운행 등 학생복지 대책 개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SW중심대학사업 추진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군산=김판곤 기자



강동오케이&풍년제과, 교육공동체에 300만원 후원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최·주관하는 제5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에 강동오케이&풍년제과(대표이사 강동오)에서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강동오 대표, 두재균 위원장과 송동하 감사, 이강선 집행위원장, 박효정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동오 대표는 "언론을 통해 교권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늘 안타까웠는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직원들을 위해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의 취지를 이해하고 후원에 힘써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고독사 예방 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읍면동장 1일 17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사업 사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로, 총 127개 지자체가 사례를 제출해 9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남원시는 고독사 위험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분야에서 최우수 서울특별시 이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9개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장 1일 17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은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의 중점 시책으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장 발전의 초석으로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만 1만세대를 넘게 방문했다. 방문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취약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특히,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들을 살피면서 긍정적인 선순



환으로 지역 내 많은 민간기관 및 자원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주인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며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집중적 대응으로 시민 중심의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용철 전북대 웹마스터, 대학직원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홍보실 노용철 웹마스터가 제15회 대학직원대상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활동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에 노용철 웹마스터는 프로젝트머로서 역량을 발휘해 전북대 메인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 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장은성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지난달 30일 군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1년도부터 3년째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임근홍 회장은 "진안군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우리 군의 지역인재 양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전북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이웃돕기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비전대, 일본 오사카 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우병훈은 지난달 24~27일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근산 산학협력담당장, 조영주 사회복지경영학과 교수, 유세영 산업기술연구원 등 방문단은 (주)미유희를 시작으로 넷세이주서비스 주식회사, 이코야마 주식회사, 재일본대한민국인간 오사카지방법본부(오사카 민단), 오사카 한국문화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특별안호노인후보 코즈에, 요로코펜의 준공식에도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공립단설유치원 행정 직원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지난달 29일 공립단설유치원 행정실 직원 3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5세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사업의 취지 및 지원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유아·놀이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형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도담유치원 운영 사례도 살펴봤다. 특히 연수생들은 유아 드론, AI로봇 활용 코딩놀이, VR체험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성덕면 지사협,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안인식, 민간위원장 양경철)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인 관내 장애인과 저소득층 35가구에 각각 20만원 상당의 난방유(총 700만 원)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된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작년 특화사업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사협위원의 추천을 받아 고물가로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35세대를 선별해 진행되었다. 난방유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양경철 민간위원장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상담 호응

정읍시는 지난달 29일 동동, 철보, 산내 산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금액·시간 등의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날은 동부권역을 찾아가 마을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등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한 시민은 "그 동안 금액 부담으로 상담을 망설였었는데, 상담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확대해 복잡한 세무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